

데스크 시각

국립극장이 산을 찾는 까닭은



박진현 편집국장 부국장·문화선임기자

리가가는 자칫 극장이 텅 빌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악의 대중화는 국립극장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다. 지난 2013년 취재차 만난 임연철 국립극장장(현 건양대 교수)은 국악 인구의 저변 확대를 최우선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 1천만 명 가운데 국악 마니아는 1000~200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국악 대중화 이끈 ‘고고고’

이렇다 보니 매년 기획공연 때마다 해 올름극장(1563석) 객석을 가득 채우는 것도 버겁다. 그래서 내놓은 게 ‘국립극장 고고고’나 ‘정오의 음악회’ 등의 교육 프로그램. 아무리 우리 음악이 좋다고 말해도 평소 ‘접할 기회가 없는’ 사람에게는 친근해지기 힘든 생소한 장르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지난 2009년 신설된 ‘국립극장 고고고-보고, 듣고, 즐기기’는 최고의 히트상품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희곡과 전통국악을 학년별 맞춤형 공연으로 제작해 국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이 프로그램에만 8만 명의 청소년들이 다녀갔다. 10년 전 취재차 방문한 뉴욕 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이하 모마)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목격했다. 19세기 말부터 현대까지 유럽과 미국의 근·현대

미술품 14만여 점을 소장한 클로벌 미술관이지만 모마가 공을 들이는 ‘VIP 고객’은 다름 아닌 뉴욕시의 청소년과 중·장년층이다. ‘포드 패밀리 프로그램’, ‘방과 후 모마학교’ 등을 통해 현대미술에 대한 거리를 좁혀 이들을 자연스럽게 미술관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다. 특히 ‘방과 후 모마학교’는 학교 수업과 연계한 정규 과목으로 학생들은 에듀케이터(educator)의 안내로 예술에 대한 안목과 창의성을 기른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지난 4월 대중들에게 첫선을 보였다. 지난 2005년 첫 삽을 뜬 지 꼭 10년 만이다. 비록 부분개관 이긴 하지만 서울 예술의 전당보다 큰 16만㎡ 규모의 국내 최대 시설과 친환경적인 컨셉은 아시아 문화 허브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게 한다.

문화전당이 성공하려면

하지만, ‘최첨단 문화발신지’라는 프레임에 갇혀 대중과 거리가 있는 일부 난해한 콘텐츠로 일관해서는 곤란하다. 그렇기 없이도 홍보·편의시설 부족으로 우려를 안겨 주고 있는 마당에. 무엇보다도 지난 20일 막을 내린 3주간의 아시아 예술극장 개관 페스티벌은 논란의 중심에 선 ‘이슈 메이커’였다. 실험적이고 난해한 30여 편의 작품에 대해 서

울과 광주 그리고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에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다. 국내의 공연 전문가들은 ‘신선하고 파격적인 시도’라며 박수를 보냈지만 지역 예술인과 일반 관객들은 “너무 현학적이다”며 고개를 저었다. 실제로 일부 공연을 제외하고는 지역 관객들이 거의 없었고 ‘따돌이’ in 광주’ ‘당나무 승려’ ‘바보기계’ 등에서 중간에 자리를 뜨는 관객들이 많았다. 아직 콘텐츠가 완비되지 않은 문화창조원 역시 실험적인 콘텐츠로 채워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물론 문화전당이 동시대 아시아예술의 허브를 지향하는 만큼 ‘방향성’을 바꿀 수는 없다. 문제는 대중성과 예술성, 광주와 아시아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 내느냐 하는 것이다. 공연 전문가 1%의 찬사에 ‘업’(up)된 나머지 99%의 우려를 외면한다면 자칫 ‘배우만 있고 관객은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대중성이 높은 작품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예술의 콘텐츠를 보완하는 등의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예술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는 지혜도 필요하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했던가. 문화전당이 광주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은펜클럽

생활 속 여유의 가치



한국환 전남도립대학교 외래교수

알았다. 그런데 흥차를 그 모래 위에 부었다. 그러자 흥차는 모래 틈으로 모두 스며들었으며 학생들은 모두 웃었다. 잠시 후 강의실이 잠잠해지자 교수는 입을 열었다. “이 그릇은 여러분의 인생이고, 타구공은 중요한 것으로서 가족, 건강, 친구들이고, 자갈은 그 다음 중요한 것으로 일, 취미 등이며, 맨 위의 모래는 그 밖의 자질구레한 것들입니다.” 교수는 말을 이어간다. “반약에 모래를 먼저 그릇에 넣었다면 타구공도 자갈도 들어갈 수 없었겠죠. 그래서 자기의 주어진 시간에 자질구레한 일만 하다 보면 진정 중요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지 순서를 정해라고 했다. “오늘부터 가족들과 식사하며 대화를 나눠보세요. 친한 친구들과 즐거운 만남의 시간을 갖고 운동도 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가세요. 분명 일에 충실하며 취미생활을 하면 분명 여러 분 생활이 아주 운택해질 것입니다.” 교수의 말이 끝나자, 한 학생이 질문을 한다. “교수님, 그렇다면 마지막에 부은 흥차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필까요?” 모두 조용한 가운데 침묵이 흘렀다. 이내 교수는 말을 이어간다. “그것은 ‘여유’입니다.

모두들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바쁜 생활에도 따뜻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을요.” 이렇게 강의가 끝나자, 생생하게 눈으로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는 교수의 뜻 깊은 가르침에 모든 학생들은 박수를 보냈다고 한다. 곧 추석이다. 이번 추석연휴가 9월 29일 대체공휴일까지 포함해 4일을 쉴 수 있는데, 여행업계에 따르면 올 추석 전후 예약이 늘고 있다고 한다. 어떤 직장인들은 연차를 활용하여 추석연휴 이후 10월 3일 개천절까지 장기휴가로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연휴기간의 예약비중은 동남아가 31.4%, 가장 높고, 중국 27.9%, 일본 23.4%, 또 근거리 지역이 많으며, 그 다음 유럽 10.0%, 미주 3.9%, 남태평양 3.4% 등이다. 거기다가 저가 항공사의 특가 상품으로 근거리 및 장거리 여행수요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요즘 세대는 예전의 달리 고유문화의 전통을 지켜가기보다는 직장 생활 등 틀에 얽매인 생활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픈 마음에서 비롯된 다양한 여행이 명절 풍속도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명절 연휴에 고향방문이든 해외여행이든 일상생활을 접어두고 집을 떠난다는 것은 분명 즐거움이고, ‘여유’이다. 이는 바쁜 삶 속에도 시간적, 심적인

여유를 갖고 싶어 함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는 11년째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자살률 1위(하루 평균 40명, 10만 명당 29.1명)이다. 세계 10위권 경제국이지만 행복지수는 47위라는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은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외되고 어려운 주변 이웃을 찾아보는 여유도 가져봤으면 한다. ‘우리 삶의 어느 날도 혼자서 아니다’는 것을 서로 확인했으면 한다. ‘사람에게 사람 필요하다(People need people)’는 타고르의 말처럼 사람에게 사람이 더 소중함은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특히 요즘엔 ‘배려와 소통’, 그리고 ‘경쟁보다 상생’이 더 높은 사회적 가치로 평가되고 있는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찾아보고 교류하며 베푸는 것이 최고의 ‘배려와 소통’이 아닐까? ‘눈물을 닦아주기 보다는 같이 울어 줄 수 있는 친구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더 깊이 생각해 본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내 욕심을 채울 때가 아니라 더 베풀 때라고 했던가? .....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社說

AI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 다해야

나주시와 강진군의 농장 2곳에서 발견된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의심 오리(HPAI·H5N8형) 확인 판정을 받았다. 이어 담양과 광주 북구의 전통시장 내 가금 판매소 2곳에서 AI 항원(H5N8)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추석 명절 민족 대이동을 앞두고 AI가 확산 국면에 들어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이다. 특히 AI 발생이 전남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데 울 들어 서만 무안·나주·구례·강진·영광 등 5개 시·군 29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그동안 예방 차원에서 총 44농가의 오리와 닭 65만3000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축산농가들의 고통과 시름이 얼마나 클지 안타까울 뿐이다. 당국은 AI확산을 막기 위해 광주와 담양의 전통시장에서 일제 긴급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가금류 판매소를 폐쇄하고 가금류 판매 금지 처분을 내렸

다. 이 같은 조치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당연한 일이지만 추석 대목 장사를 기대했던 시장 상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게다가 해당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어들면서 과일 등 다른 품목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한다.

이처럼 조류인플루엔자는 한 번 발병하면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적지 않다. 확산을 받은 농장 인근 10km 이내 지역의 가금류 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는 물론 가금류 살처분도 피할 수 없다. 자식처럼 알뜰살뜰 키워 온 가금류를 살처분해야 하는 축산농가들의 마음이 오죽하겠는가.

당국은 귀성객들의 발병 지역 방문 시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아울러 추석 연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AI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갈수록 증가 지방대 자퇴생 졸업 대책 없나

대학 수험능력시험(수능)이 너무 쉽게 출제되는 바람에 부작용이 많다. 이른바 ‘반수생’(半修生)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도 그 중 하나다. 반수생은 ‘물수능’으로 쉽게 대학에 들어간 신입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한 나머지 학교에 다니며 재수하는 걸 말한다. 이들의 증가가 가계 부담은 물론 대학운영에도 차질을 빚는다.

교육부의 ‘2014년 전국 대학 1학년 휴학·자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대 신입생 4672명 중 543명이 1년 내 휴학(336명)하거나 자퇴(207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전체 신입생 중 11.6%에 이른다. 조선대 역시 같은 해 신입생 5123명 중 637명이 1년 이내 휴학·자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신입생의 12.4%나 된다. 광주·전남의 대표적인 4년제 대학에서 10명 중 1명은 다시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실정인 셈이다. 지역 사립대들도 편차는 있지만 똑같은 고

충을 겪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후 재차 입시를 준비하면 이로 인해 뼈뚫은 가계에 주름살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포기해야 하고, 수능에 재도전하는 데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다. 대학도 학생들이 빠져나가면 원만한 학사 운영이 어렵다.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물수능’이 꼽힌다. 수년째 ‘쉬운 수능’ 기조가 유지되면서 잘만 하면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쉽사리 ‘반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내신 성적 위주인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많다 보니 적성은 고려하지 않고 일단 합격해 놓고 진로를 바꾸는 경향도 반수를 부추긴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적절한 수능 변별력 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학생들이 최대한 적합한 학과를 선택하도록 유도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조선 태종 11년인 1411년, 일본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 원의지가 조선에 코끼리 한 마리를 선물했다. 태종은 이 코끼리를 귀하게 여겨 동물 사육을 담당하는 관청인 사복시에 맡겨 기르도록 했다. 문제는 코끼리의 식육이었다. 하루에 4~5말(한 말은 18ℓ)의 콩을 먹여 치우는 코끼리의 식육은 조정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이듬해인 1412년 12월 10일, 기어 이 일이 터지고 말았다. 공조전

에서도 부담이었다. 가뜰이나 식량이 부족한데 거대한 코끼리까지 가세했으니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느 날 전라도 관찰사가 임금에게 장계(狀啓)를 올렸다. “코끼리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해 아우것도 먹지 않고 허접없이 눈물만 흘린다”는 내용이였다. 코끼리는 눈물샘이 없지만 당시에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딱한 사연에 태종은 코끼리를 유배에 서 풀어 육지로 나오게 했다. 그렇다고 코끼리의 신세가 바뀌지는 않았다. 사육 부담에 모두 맡는 것을 꺼리는 바람에 코끼리는 이우를 밟아 죽이고 만 것이다. 살인죄를 저지른 코끼리에 대한 재판이 벌어졌다. 죽이자는 의견과 일본에서 선물로 준 것이니 죽이는 것은 외교 관례상 맞지 않는다는 갑론을박이 일어났다. 병조판서 유정현이 “사람을 죽였으니 죽이는 것이 마땅하고 많은 식량을 축내니 멀리 내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전라도 섬으로 보내 거기서 살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결국 코끼리는 1413년 11월 5일 보성 장도로 귀양을 가게 된다. 코끼리는 섬

코끼리섬 장도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 notice about a seminar for new members.

기 고

완도 사람들과 해조류 그리고 2017 해조류박람회



신우철 완도군수

년 사진첩’을 본 적이 있었다. 그 사진들 중 특별한 사진 한 장이 기억난다. 일제가 각 섬 지역주민들의 체격을 측정하기 위해 가슴에 관리번호를 붙이고 찍은 사진이었는데 완도사람들의 체격이 월등히 컸다. 주관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도 마찬가지다. 각종 생활체육 경기를 할 때 완도 대표선수들과 타 지역 선수들을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뭘까?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전복과 물고기 같은 싱싱한 어패류를 잘 먹고 자라서? 더 큰 이유는 아마도 완도 사람들이 특히 즐겨먹었던 김과 미역, 다시마, 톳 같은 해조류에 그 비밀의 열쇠가 있는 것 같다. 해조류는 피를 맑게 해주고, 활성산소 생성을 억제하며,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예방에 좋다. 또 빈혈, 고혈압, 동맥경화 등 각종 성인병과 장암 등 각종 암 발생을 예방하는 젊어지고, 마음에 좋고, 성인병과 비만을 방지하는 건강식품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건강과 체위향상을 위해서는 해조류를 많이 섭취해야 한다. 해조류의 안전성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청정바다 수도인 완도에서 나오는 해조류는 절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아시아시피 완도는 전국 양식장 면적 25만ha의 14%인 3만5000ha의 양식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양식장에서는 전국 다시마 생산량의 70%, 미역 46%, 톳 60%, 매생이 40%, 김은 15%가 생산된다. 이렇게 해조류의 전국 최고 생산지인 완도에서는 지난해 4월, ‘2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개최했다. 개최 5일 만에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자 53만6000명이라는 관람객이 방문했다. 그 중 26%가 타 지역민이고, 특히 일본, 중국을 비롯한 각국 바이어와 4800만 달러어치의 수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부터 세월호 사고에도 불구하고 크게 선전했다는 사후 평가를 받았다. 지난 6월 2일 여수에서 열린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전통적인 농어업에 ICT, 생명공학, 식품 가공기술을 결합하고 혁신 아이디어를 더해 가치를 끌어올리다면 차세대 융합형 핵심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전남을 중심으로 한 ‘K-Food 벨트’ 구축 등을 강조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도 지난 6월 29일 민선 6기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해양수산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

화를 위한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를 조성하겠다는 말한 바 있다. 완도군은 이렇게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해조류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1조 원 대 시장 진입을 목표로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개최하려 한다. 부제는 ‘인류의 미래 해조류, 그 가치를 발견하다’. 이를 통해 60년이라는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정체된 우리나라 해조류산업을 견인하고, 국제·사회적인 관심과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국제 해조류산업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또 전국 생산량의 86%를 점하는 전남산 해조류의 우수성과 미래 산업화 홍보로 사업인 소득을 높이고, 전국 최대 해조류 생산지라는 명성에 걸 맞는 생산인프라와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앞당길 예정이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 미완의 박람회로 기억됐던 2014 박람회의 아픈 기억을 지우고, 완도 해조류의 우수성과 해조류산업의 장밋빛 미래를 2017 박람회를 통해 세계인들의 가슴에 각인시키겠다”는 우리 완도군민과 공직자들의 노력에 도내 각급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연한 기회에 ‘전남 개도 100주년 기